

# 순천시, 민간 세계수석박물관·예술의 성에서 현장간부회의 개최

## 2023정원박람회·민간 정원 연계 코스 논의 상사면 문화예술기반단지 조성 인프라 기대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달 30일 순천시 개방정원으로 등록된 미립수목원과 예술의 성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간부회의는 허석 순천시장과 30여 명의 순천시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3정원박람회와 민간의 우수 개방정원을 연계

한 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종 조경수와 조경석을 활용한 테마정원과 낭만적인 야외 가든 웨딩홀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던 상사면 옥곡리의 구)미립수목원에 자리 잡은 세계수석박물관은, 현재 박병선 관장이 인수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8천여 점의 수석을 테마별로 전시하게 되며, 정원과 어울리는 세계수석박물관으로 탈바꿈해 12월 개장할 예정이다. 수석박물관에서 차로 10분 거리, 상사면 용암리에 소재한 예술의 성은 민간 정원이자 예술테마파크의 대표적인 한 사례이다. 1만5천여㎡ 부지에 미술품과 유리공예, 도자기, 다양한 분재 등이 전시돼 있다. 이달 준공을 앞두고 전남도 민간 정원을 신청한 상태다.

상사면의 문화예술기반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순천의 문화관광 인프라는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풍부하게 전시된 데다, 박람회장과도 가까워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된다. 허석 시장은 “오늘 찾은 상사면의 두 정원처럼 민간에서 조성한 우수 정원과 시설을 발굴해 박람회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승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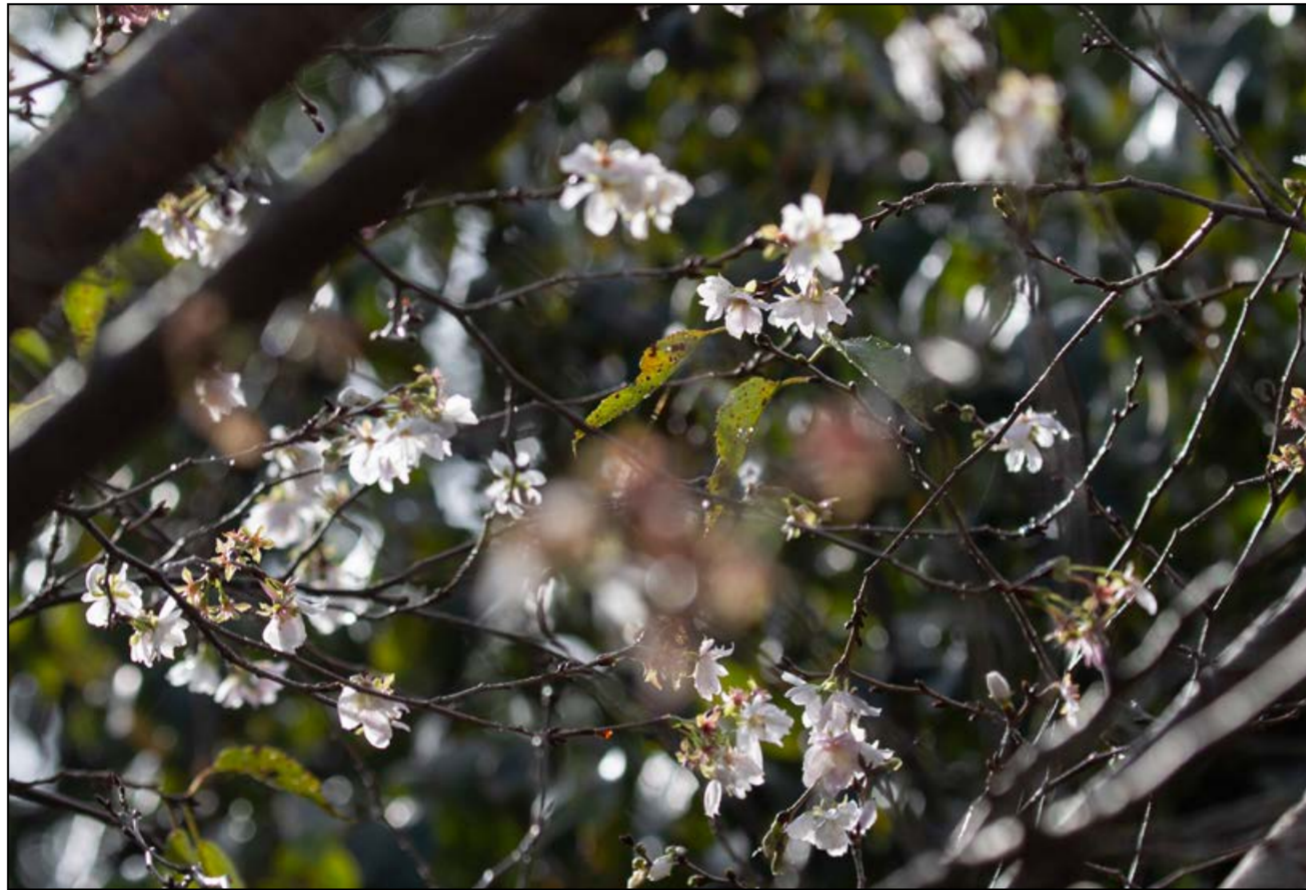
## 광양시, 올해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 시민의 상 서현필, 광양인상 박성협·김영일

광양시는 최근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의 상 1명,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시민의 상 수상자로 산업경제 부문에 서현필(만 71세, 농촌지도자)을 선정했다. 서현필 수상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여 년을 농촌지도자로 활동해 오면서 농촌지도자회 조직 육성과 자매도시(경기도 파주시)와의 농산물 판매 교류활동, 읍면동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활동, 전문기술을 활용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시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보육재단 후원, 수해복구 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는 출향인

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20년에 처음 시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산업·경제 분야의 박성협(만 67세, 기업인)과 그 밖의 분야의 김영일(만 62세, 행정사)이 선정됐다. 박성협 수상자는 ㈜세양물류 대표이사로서 시와 1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대규모 복합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여수화학단지에 있는 석유화학제품을 광양항을 통해 수출입해 연 6천TEU의 물동량을 유치했다. 김영일 수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광양시민들의 오래된 집단갈등 민원을 해결했으며, 잦은 사망사고 도로구간(용강-덕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중재해 광양시민의 권의 보호에 앞장서 왔다. /오승택 기자

## 곡성군 '마음건강 쉽' 운영

곡성군(군수 유근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최근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음건강 쉽'을 운영했다. '마음건강 쉽'은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자살 징후 식별하기, 대처 능력 향상시키기 등 6회기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다.



벚꽃이라 하면 화사한 봄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구례수목원에 피어난 벚꽃은 가을에 화사하게 피어나 가을의 전령처럼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가을바람을 머금고 수줍게 피어나는 '가을벚나무(어탑날리스, Prunus subhirtella 'Autumnali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구례군 제공

아울러 다른 사람의 자살 위기에 개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도 실시했다.

교육 외에도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1분이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마인드케어 기기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두뇌 건강 상태를 살폈다.

또한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에 개선 효과가 있는 tDCS(경두개 자극기)를 이용해 정신 건강 케어 서비스를 받았다. 센터 측은 코로나19 심리안정 키트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가 나왔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라고 전했다. /심선성 기자

## 구례수목원, 아름다운 '가을벚나무 꽃' 활짝

구례군이 운영하는 구례수목원에 아름다운 가을벚꽃이 개화해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벚꽃이라 하면 화사한 봄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구례수목원에 피어난 벚꽃은 가을에 화사하게 피어나 가을의 전령처럼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가을바람을 머금고 수줍게 피어나는 '가을벚나무(어탑날리스, Prunus subhirtella

'Autumnali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가을벚나무는 봄과 가을에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춘추벚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는 1978년 영국 힐리어(Hillier) 농장에서 천리포수목원에 들어와 처음 소개됐다. 일반 벚꽃에 비해 꽃송이가 약간 작고 분홍빛 겹꽃의 형태를 띠는데 희귀성과 아름다움을 영국왕립원예협

회로부터 인정받아 AGM(Award of Garden Merit)을 수상했다. 대개 처음 핀 꽃이 또 한번 피어나 일 년에 2번 개화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내내 꽃을 피워 개화시기가 매우 길다. 겨울이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는 눈 속에서 가을벚나무 꽃을 볼 수 있어 그 매력을 더욱 발산한다. /심건성 기자

## 여수, 코로나19 대응 취약분야 대책회의 대학생·산단·건설공사현장·선원 등 방안 논의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인구 이동량 증가 영향으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취약분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학생 등 취약부분에서 발생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현식 부시장은 대책회의에서 ▲사적모임 자제 ▲타지역 방문, 타지역거주자 접촉 시 진단검사 후 복귀 ▲백신접종을 제고(미접종자 예약 독려)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2주일 1회 진단검사와 같은 핵심 사항의 홍보활동과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영상회의 후 박현식 부시장 주재로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해 현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수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난달 24일 6명, 25일 9명, 26일 5명 등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대부분이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거주자 접촉,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단근로자, 건설업종사자, 제조업체

아울러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률 제고, 선제적 진단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문석 기자



#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자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

